

2024 THE KIMS' NEWS 김규동 & 최미정 선교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삼하22:30)

“멈춤”은 깊은 성찰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에 앞서왔던 지난 어리석음의 행보들이 떠올랐고 이러한 속물에게도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메주시니 아프다가도 개운케 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 길에서 겪었던 감정일까요....

작년 한해는 치유·회복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목말라하며 간구함으로 지내왔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답답하고 울컥거리고 모든 시간이 가시방석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시련이거니.... 30년 전 부활산에서 “내가 도와주리라!” 제게 들려준 음성이 또렷히 기억납니다. 지나온 사역의 길목마다 끝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복병은 사실 영적 지렛대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에벤에셀 주님의 섭리를 간구해야할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1. 고대아시아 기독교 학술세미나 주최(몽골/울란바토르):

몽골 복음주의연합신학교에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일부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연구해 온 고대 몽골에 유입된 기독교사를 함께 발표하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 방문 학습하며, 몽골교회가 선교에



동력을 쏟는 기독교로 거듭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북방선교의 전초기지)

2. 월산동 배다니 게스트하우스 판넬 작업: 노후된 건물에 난방장치가 없어 매년 겨울이 오면 한기가 엄습해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건물 외벽에 판넬을 대어서 건물의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만 좀 더 따스한 겨울을 날 것입니다. 중고판넬을 구입하여 직접 작업하다보니 서툴기도 하고 온몸이 말이 아닙니다.

3. 포천하늘교회 선교사 초청잔치: 선교사라는 이유로 초청 받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할 처지 같아보이는 작은 시골교회인데 매년 선교사 6가정을 초청해 온 성도가 잔치와 쉼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량 트렁크에는 그들의 소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선교지에서도 주는 선교를 지향해 왔는데 하늘교회의 풍성한 베품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 “섬김”을 다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런 귀한 목사님과 교회의 섬김이 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4. GMS 월문리 고대 아시아기독교 유물 특별전시회: 광신대에 설치한 유물 일부를 좀더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정보와 인식을 돕고자 특별 전시회를 한 달간 가졌습니다. 수도권 인근 각지에서 방문하여 고대 아시아에 유입된 기독교의 역사 흔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나라 기독교 3백년 역사의 발전과 쇠퇴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GMS본부 이사님들과 임시총회 참석한 선교사님에게도 브리핑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5. GMS 선교사회 힐링캠프&임시총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교사회 임시총회가 가까스로 열려 그 동안의 법정다툼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작금의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는 듯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없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머리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6. 광신대 실크로드 고대기독교 유물관 방문: 방문하는 분들에게 최소 반나절의 고대 동방 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신신대원 동문들이 멀리 수도권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향후 더 폭넓은 교제와 공유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7. 사막교부 영성강의: 광신대 & 하베스트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영성관련 과정입니다. 세속화로 몸살 중인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삶의 지혜와 영성을 향한 추구를 들려주며 삶 가운데서 가능한 영성 훈련을 나눴습니다.

8. 전도특강: 시흥한소망교회와 서울삼광교회에서 최미정 선교사의 전도특강이 이뤄졌습니다. 코비드-19 시기 대만교회에서의 전도경험을 전하며 전도에 목마른 교회 제직들에게 불쏘시개로서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9. AMRS 신학교: 박사반 논문작성법 특강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학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 사역자들에게 보다 쉽고 올바른 논문작성을 인도했습니다.

10. MRA & 대장내시경: 일년 전 겪었던 아내의 뇌진탕은 말끔히 치료되었고, 제가 대장에서 용종 하나를 제거하였습니다.

11. “천년의 은둔”(동방교회 도록): 최종 감수 중입니다. 그동안 편집해 온 고대 기독교역사 관련 사진을 해설과 더불어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역사는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자 거울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추구함과 영적생활을 들려줄 것입니다. 올 초여름이나 출간될걸로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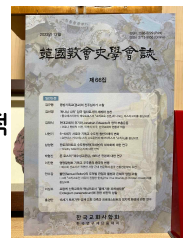
동쪽으로 간 기독교
(Christianity that spread to the East)



12. “제주”에서 새로운 선교사역이 시작됩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의 화교 지도자, 실크로드의 현지 지도자들을 불러오기에 가장 적합한 “제주”로 옮겨 사역을 진행합니다. 제주의 장점은 무비자, 자유로움, 섬, 출입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거지와 사역센터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지에서의 정착과 효과적인 선교방향과 범 중화권 네트워크 그리고 섬터 운영에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13. 한국교회사학회지에 “동방기독교의 진주십자가 고찰” 연구논문 등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사용한 진주의 가치와 의미 상징성을 통해 진주가 지닌 영적 성결, 고귀, 신비함은 메시아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정화와 순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주파송교회와 협력교회”가 줄었습니다. 각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소서!
- ② “천년의 은둔” 출판을 위해!(출판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요!)
- ③ 4월 경 “중국 난닝”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년만의 방문길 은혜를 구합니다.
- ④ “제주 선교훈련센터” 지역 선정과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연 락 처: 한국 010-2510-7890(김규동) : max4kmg@gmail.com

후원계좌: 외환: 010-04-06396-263 (예금주: GMS)

2024-02-21 김규동 최미정 선교사

